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결혼! 솔직히, 집안도 봐야 하는 거 아니예요?
광주지사 228-3222 DAKS club 닥스클럽(주)

제1776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5월 26일 (음력 4월 10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6(土)	27(日)
구름조금 14 / 28℃	구름많음 16 / 27℃

News

• 광주~완도 고속도 재검토 ②
• 버스 추락…학생 35명 사상 ③

Jeollado

• 그사람-아산 조방원 선생 ⑦

Entertainment

• 혼혈 연예인 전성시대 ⑧
• 내달 광주극장 영화축제 ⑨

Wellbeing

• 식품 탐구-메밀 ⑬

Trend & Style

• '체리피커' 따라잡기 ⑭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홍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담홍보실 1588-5051 ▶T.(061) 360-5000

쇠고기·돼지고기·사과 등 30개 민감 농산품

'세이프가드' 실효성 논란

〈긴급수입제한조치〉

한미FTA 협정문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쇠고기 등 30개 민감품목 이외의 감귤, 닭고기, 분유, 치즈 등 농축산물은 세이프가드 '동일상품 재발동 금지'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한 번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뒤에는 미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 등으로 국내 품목 생산 기반이 위협을 받더라도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돼 해당 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쇠고기 등 일부 민감품목의 경우도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국내 농산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면〉

25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 FTA협정문 내용에 따르면 쇠고기·돼지고기·사과·고추·마늘·양파·인삼 등 30개 주요 민감 농산품에 대해 수입 물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적용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외의 상당수 농·축산물과 공산품은 '동일상품 재발동 금지' 적용을 받게 됐다.

> ▲세이프가드(safeguard)=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 해당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한다.

또 외환위기 등 긴급한 시기에 자금의 대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세이프가드'의 발동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됐다. 단기 세이프가드는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ISD)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영화 촬영을 시도만 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함께 증권선물거래소(KRX)와 증권예탁원의 상장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유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고 오는 6월30일 본 서명 이전까지 양국 간 법률 검토 및 법제처의 검토를 추가로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이날 한국과 동시에 협정문을 공개했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4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액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농산물에 대해 즉각적인 비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USTR은 이날 발표한 분석자료에서 또 FTA가 체결되면 밀·옥수수·콩·버번 위스키·포도주·포도주스·체리·냉동 프렌치 프라이·냉동 오렌지 주스 농축액 등에 대한 관세가 곧바로 폐지돼 미국의 6위 농산물 수출시장인 한국에서 미국 농축산업자와 가공업자들이 새로운 수출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진수

25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열렸다. 세종대왕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슈퍼컴퓨터의 통합체로 3차원 정보 수집체계와 원거리 대공방어, 대함·대잠전, 탄도탄 방어체계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길이는 166m, 폭 21m, 높이 49.6m, 최대 30노트(55.5km)의 속도에 항속거리는 1만㎞이다. 함대공·대유도탄방어·함대함 유도탄과 장거리 대잠어뢰, 경어뢰 등 근접방어무기체계인 골키퍼(Goal Keeper), 127㎜ 함포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승조원은 300명이다. /연합뉴스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사퇴

한기민 형사과장 등 간부 4명 직위해제…김승연 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홍영기(신안 출신) 서울경찰청장이 25일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늑장수사 의혹과 관련, 전격 사퇴했다.

홍 청장은 이날 "수사 과정에서 국민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수사를 총괄하는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 사퇴했다. 〈관련기사 2·3면〉

그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조직 내에 갈등과 불협화음을 야기한 총체적 책임은 서울청장이 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은 경찰청의 감찰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또 "저의 사퇴를 계기로 경찰 조직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심기일전해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청장 사임발표 후 경찰청 감사관실은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키로 했다. 감사관실은 이날 "김 수사부장이 남대문경찰서로 사건 첩보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비위가 발견돼 이런 조치를 내렸다"며 외압·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 및 수사를 의뢰키로 했으며, 한기민(진도 출신) 서울경찰청 형사과장도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징계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태평로지구대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소홀과 보고 누락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다른 경찰관 6명도 징계키로 했다.

감찰 결과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간부들에게 사건 관련 문의 등 청탁성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5일 '보복 폭행'을 주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흉기 등 상해) 등으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다. 또 지금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두 가지 점을 들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어제 오전 동해로 수 발…정부 "연례적 군사훈련"

자금 이체 문제로 '2·13 합의'가 100일이 지나도록 교착상태인 가운데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를 향해 사거리 100~200㎞로 보이는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차례 발사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미군의 군사위성이 촬영한 화면 분석 결과 북한이 함경남도 연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소형 미사일을 탑재했던 이동식 차량과 발사 지휘·통신용 기자재와 인원이 이 부근에 집결했다가 발사후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종류는 지대함 미사일인 '실크웜' 개량형 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스커드'보다 작은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니혼TV도 방위성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여러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HK도 일본 정부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미사일 처럼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사정이 짧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진수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통상 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안보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지만 방위성은 전파 정보 수집 등의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저쪽(북)에서 쏜 것을 우리도 식별했다. 그러나 정확한 발사 시간이나 발사된 미사일 수는 아직 모른다"며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부 측에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야겠지만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매년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